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Libraries' Role by Using Free Learning Semester

노 영 희(Young Hee Noh)*

김 혜 인(Hye In Kim)**

< 목 차 >

I. 서론	V. 결과
II. 이론적 배경	1. 인구통계학적 특징
1. 선행연구	2.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2. 자유학기제 배경 및 유사 사례	3.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한 인식
III. 도서관분야 운영사례	VI. 결론 및 제언
IV.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논의 및 결론
1. 연구질문	2. 향후연구제안
2. 설문설계 및 내용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54.20%가 알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참여 경험은 80.15%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도입 시 기대효과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려사항에 대해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해 58.02%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산부족이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63.36%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람도서관(Human Library)과 읽GO! 생각하GO! 꿈꾸GO!(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다양한 직군에 대해 독서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프로그램)가 평균 3.939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자유학기제, 도서관, 사서의 인식, 도서관의 역할강화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librarians perceptions of Free Learning Semester, and their commitment to program development for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and whether they currently offer programs for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n perceptions of Free Learning semester showed that 54.20% of the libra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aware of Free Learning Semester, and 80.15% had participated in training related to Free Learning Semester. Regarding the anticipated outcomes of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articipation in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offered through Free Learning Semester" was the most common response, and regarding special considerations in Free Learning Semester, "Need for instituting the dedicated workforce and enhancing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was the most common response. Second, regarding the library program development and provision for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58.02% thought that the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w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role of libraries, while insufficient budget was listed as a barrier. In addition, 63.36% stat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in providing a program in a library. Finally, the results on the perception on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 they want to provide in a library showed that "Human Library" and "Read! Think! Dream!" were the programs they want to provide most, with the mean score of 3.939.

Keywords: Free Semester, Library, Librarians' percep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Librarie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hdah3258@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10월 26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21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93-122,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122]

I. 서론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험 운영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동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 체제는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과 수업을 재구성하고, 오후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에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의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신성미 2015), 자유학기제의 목표인 진로탐색과 핵심역량 개발 측면에서의 연구, 각 교과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학교 운영보고서를 통한 교육 과정 측면에서의 분석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신성미 2015).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연구가 학과 단위 또는 전공단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가정과교육의 방향성 탐색(김성숙, 김정현, 정인경 2015),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하정화, 손주영 2015),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체험 경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과 태도 분석(조계중 2015), 산림교육 연계 자유학기제 만족도 분석연구(하시연, 이연희, 손지원 2015)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각적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이나 문헌정보학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장 도서관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인 도서관과 함께하는 꿈 Dream 학교 운영, 동수원중학교의 독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고전 읽기 프로그램, 원천중학교의 1학년 자유학기제 자유교과활동으로 끼를 살리고 꿈을 꾸게 하는 국어수업 진행 등이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대비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헌정보학과 차원에서나 도서관차원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 자료의 접근을 도서관 보다는 포털을 통해 이용하는 문제,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 제공기관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도입은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자유학기제 적용 창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미디어 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연구, 공공을 위한 디자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자유학기제 디자인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유학기제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로는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학기제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은정(2013)은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실과(기술·가정)에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정교과통합에 따른 진로교육의 타당성과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교육 방향 및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동향,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동향과 실과(기술·가정)에서 교육과정 분석 및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연구의 동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실행에 앞서 교과 내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라(2015)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본 방향, 운영 체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자유학기제에서 국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로, 성은모와 정효정(2013)은 자유학기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현은령(2015)도 자유학기제 적용 창의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미디어 융합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교재(워크북)와 강사 매뉴얼(지도서)을 개발하여 교사들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성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로, 김미진 등(2014)은 2013년 1학년 2학기에 전국 42개의 연구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시범 적용 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과정에서 필수교과의 시수를 전체 시수의 64.4%로 대폭 감축하였고 자율과정의 시수를 증배하였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시수를 대폭 증배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을 중점 활동별 운영 모형과 교육과정 연계에 따른 운영 모형들 중 어떤 것을 채택하였는지, 그리고 핵심 특성인 자율과정을 학교별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실시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 확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성,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연계, 준고교(junior high school)가 아니라 본래의 중학교(middle school)로서 정체성 회복 등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와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황유진(2014)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시키고, 배움을 넘어 배려와 나눔의 행복을 키우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중학교 1학년 대상의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연구와 학생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와 그 과정 속에서의 평가 모형을 구안·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 모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의 신장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학교활동을 보장하고, 체험 중심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생에 대한 설계 및 사회 학습에 따른 적응력, 창의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연구가 수행된 바는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기반으로 한 사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자유학기제 배경 및 유사 사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은 진로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혁신, 학생부담 해소, 안정적인 정착 주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유사사례는 해외에도 다수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도입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TY)는 아일랜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교육과정 제도이고, 호주는 학교혁신과 우수 사례 프로젝트(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를 추진하였으며, 스웨덴은 초등학교 8학년과 9학년 사이(우리나라의 중학교 2, 3년에 해당) 2주 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프라오(PRAO)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애프터스쿨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의 1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이다(Peterson & Poulsen, 2008). 또한 영국의 갱이어는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을 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 또한 갱이어는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고 직업세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ones 2004).

〈표 1〉 자유학기제 유사사례 분석결과

자유학기제 유사사례	특징	대상	기간	도입배경	효과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 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지적, 직업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함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전 -15~16세	1년	-학생들의 성숙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배경 제공	-전환학년제 프로그램 내용 및 교과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환학년제 참여 학생의 성숙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인성발달 -사회성발달 -교육적 발달 -직업적 발달
영국 갱이어	-갱이어참여동기: 다양한 문화 및 장소체험, 삶의반경 확장, 삶의 지혜 터득, 학업 및 일에서 휴식, 사회에의 기여, 이타심, 종교적 신념, 대학입학 및 취업관련 학문경력 개발, 대학 등록금 자금 확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전 -15~대학생	3개월~24개월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또한 직업세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가 -가족 간의 관계 개선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가 -의사결정능력 향상 -심리사회성 개발 -자신감, 성숙, 독립성 개발 -사회적 스킬 개발 -진로선택과 진로개발
덴마크 애프터스쿨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기초 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1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	-8~10학년 청소년 -14~18세	1~2년	-계몽주의 영향아래, 정치적으로교육적 자유로운 학교설립 가능	-학문적, 사회적, 개인적 역량 개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
스웨덴 프라오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프라오 체험규정을 수립·운영 함	-초등학교 8학년 9학년 사이 -15~16세	1~3주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체험하고, 미래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	-직업, 직업생활에 대한 통찰력 향상 -학습의 중요성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학생집단 재구성, 협력수업팀 구성, 학교 컨소시엄 구축, 학생중심 교육과정 설계, 협동학습과 ICT 활용 수업 및 학교 이외의 수업 장소 활용 등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나라(2013)는 그 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위학교 별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담팀 및 전담인력 필요, 단위학교 별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교수의 전문성 개발, 학교 내외의 자원활용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체제 필요, 교육과정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수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험운영과 효과성 검증 등을 제안하고 있다.

Ⅲ. 도서관분야 운영사례

최근에는 자유학기제를 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신문기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소개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사례들을 보면, 도서관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서직업체험, 사서를 제외한 타직업체험, 진로탐색, 정보활용교육 등이 있었고,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관련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과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거나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었다. 대학 차원에서는 전북대학교에서 2015년 10월 자유학기제 중학생 체험프로그램 실시하여 전북대 실험관 및 연구소, 중앙도서관, 박물관 등 대학 캠퍼스 곳곳을 탐방한 사례만이 있었다. 도서관과 관련된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사서직업체험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 끼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사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학교, 동아리, 개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1시간 30분씩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 시청, 사서직업소개(PPT), 도서관 견학, 사서 실습 등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도서관이 살아있다’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활용하여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탐방, 진로 관련 도서를 활용한 직업탐색 활동, 다양한 지능별 미션 수행하기 등이다.

〈표 2〉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사서직업체험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시간(총 90분)
동영상시청	사서의 일상 모습스케치와 인터뷰 내용	10분
사서직업소개(PPT)	세계의 아름다운도서관, 영화 속의 도서관과 사서, 사서출신의 유명한 통한 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 직업전망 소개	20분
도서관 견학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실 등 주요시설 소개	30분
사서 실습	자료 정리, 배가, 검색, 대출까지의 사서체험	30분

나. 정독도서관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청소년관 운영

정독도서관은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으로 ‘비전! 독서캠프, 체험! 도서관 사서’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 독서캠프’의 주요 내용은 미래설계, 120살 인생서클 북 제작, 독서를 통한 진로탐색이며 체험 도서관 사서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사서 직업체험이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청소년 전용 청소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료·진학 자료, 교과연계도서, 대학입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갖추어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 부평도서관 자유학기제 적성탐색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부평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진로독서체험, 과학발명에

〈표 3〉 자유학기제! 부평도서관과 함께 미래 찾기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학교	내용	장소
진로독서체험	4~11월	1~2교 (선착순)	대상 : 중학교 1~2학년 횟수 : 1회 2시간(총 10회) 내용 : 적성과 미래 탐색	학교
사서 직업체험	3~11월	신청학교	대상 : 중학교 1~2학년 내용 : 도서관 사서 직업체험	도서관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9월	2개교 (선착순)	대상 : 중학교1~2학년 내용 : 발명 기법, 아이디어, 창출, 발명실습 등	학교
씨앗독서회	3~11월	관내 중학교	횟수 : 월 1회 (총 8회) 대상 : 중학교 1~2학년 인원 : 20명 내용 : 책 읽기와 토론	도서관
DVD 기관대출	연중	관내 중학교	대출개수 및 기간: 1회 5개 4주간	학교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대한 관심 유도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에디슨 발명교실,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사서 직업체험 등이다.

라. 기타 도서관분야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표 4> 도서관분야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구분	프로그램 주제	도서관명	내용
사서직업 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직업체험프로그램	당진도서관	- 독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초·중학생을 위한 인문학계 직업군, 책 속 직업체험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서직업체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동부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해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역사, 자료검색 방법을 익히면서 도서대출, 서가배열 등 사서직 체험을 통한 실습 중심의 참여형 맞춤교육
	도서관에서 내 꿈 찾기	성남도서관	- 도서관과 책의 역사, 사서의 역할 및 진로 소개 등 도서관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기본 강의 - 도서관 견학 및 사서 체험(자료관리, 도서정리, 대출반납 등 사서업무) 등
	도서관에서 꿈 찾기	울산남부도서관	- 사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 도서관의 역할 및 사서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 - 자료가 정리되고 이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습하는 사서 업무 방식 체험
	책 읽어주세요	아산도서관	-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 저학년층 대상으로 1대 1로 영어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독서봉사활동
직업체험	직업전문인 특강	공주유구도서관	- 항공우주과학자, 여행가이드, 애니메이션 성우, 쇼콜라티에직업전문인을 초빙해 찾아가는 프로그램
	읽GO! 생각하GO! 꿈꾸GO!	목포공공도서관	- 내가 좋아하는 것을 JOB이라, 만화가가 되어보자, 나도 영화감독이다, 내가 만드는 도서관 등을 주제로 독서교실 개최
	찾아기는 진로특강	금산도서관	-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진로탐색	길 위의 인문학 -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	천안성환도서관	- <강연+탐방>으로 구성 - 강연: 청소년기 진로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도서의 작가를 초청하여 책과 진로탐색에 대해 탐색 - 탐방: 실제 직업군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진행되는 현장학습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인천계양도서관	- 북아트 - 낭송 - 꿈누리 환경지킴이 - 책 속 직업 탐험 등
	사람도서관(Human Library)	대구중앙도서관	- 강연 문외가 들어오면 보유한 사람책을 연결해주거나 주제에 맞는 사람책을 대출해 줌 - 사람책으로 선정된 주인공이 학교에 직접 방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겪었던 일, 일화 등을 들려줌
	꿈길을 열어주는 책읽기	영동도서관	- 나의 꿈 찾기를 주제로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고 책 속에서 멘토 찾기 등
	명화와 동화 속-그림과 노닐다	서산해미도서관	- 도서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등의 책과 연계하여 문자디자인, 북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창작, 가죽공예, 스탬프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으며, 자신만의 아트 앤 크라프트 워크북을 완성
	자유학기제 연계, 이렇게 멋진! 여행 플래너	경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	- 여행은 성장이자라는 주제로 특강 - 도서관을 방문해 참고자료 찾기 등을 수행하며 탐벌 개성이 묻어나는 여행 기획안 작성 - 도서관장, 학교장, 여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의 여행 기획안을 심사 - 최우수팀은 도서관장 명의의 상장과 학생들이 낸 기획안을 토대로 한 실전 여행의 기회가 주어짐
	길 위의 인문학	태장마루도서관	-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의 저자 박상미 작가 강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 - 박상미 작가 작업실 방문,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 - 후기활동: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 작성 및 토론·발표
찾아기는 IT School	대구북부도서관	- 앱인벤터, 아두이노 등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과정 - PC기반의 다큐만들기 과정	

인문학체험	길 위의 인문학	산성도서관	- 채만식 문학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와 수탈이야기
	길 위의 인문학	덕이도서관	- 황순원 문학관 탐방
	길 위의 인문학	양주희망도서관	- 우리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 -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우리궁궐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 - 경복궁과 회암사에서 궁궐 및 문화재를 견학하며 역사적 배경에 관해 고찰 - 문정왕후어보 조기반환 촉구 풍등 날리기
	길 위의 인문학	경기포천시립중앙도서관	- 예술분야의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이천 세라피아 및 스페인조각공원을 탐방하며 조각과 공예 예술품을 감상 - 포천시미술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임승오 조각가가 “예술로 보는 인간의 고뇌”라는 주제로 예술에 대한 기초이론과 작품 감상법을 지도
정보활용교육	도서관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공공도서관	-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선정한 13가지 주제에 따라 신뢰할만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종합해 문제 해결 방법 찾도록 지도

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체험에 관해서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업체험과 타 전문직종에 대한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진로특강을 개설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진로탐색을 위해 경기도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연구질의는 다음과 같다.

RQ 1: 사서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RQ 2: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역량강화 및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RQ 3: 사서들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효과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RQ 4: 자유학기제를 통한 도서관 역할확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질문 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경력별, 관중별 인식차이도 조사하였으나 연구질문에서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2. 설문설계 및 내용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사례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자유학기제 시범교육(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분석(이은영 외 2014) 등 관련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을 포함하여, 사례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은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도서관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문 기사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도서관 계획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굴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는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의 구조는 크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과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문항으로 설문이 개발되었다.

〈표 5〉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항목	내용
인구학적 특징	성별, 경력, 관중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연수 참가여부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유형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도서관의 역할확대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항목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여부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본 연구에서는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서의 경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공공도서관 828개 중 40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57부를 회수 받아 71.25%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 53개, 4년제 사립대학도서관 198개 총 250개의 대학도서관 목록을 확보하였다. 4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였으며 55부를 회수 받아 68.75%의 설문이 회수되었

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40개 학교를 확보하였으며, 사서 재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사례집을 참고하여 설문대상을 확보하였다. 40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40부를 배포하였으며, 25부를 회수 받아 62.5%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 200부 배포 중 137부를 회수 받았으며 회수율은 68.5%이다.

통계분석방법으로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V.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관종별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총 131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남자 23명(17.56%), 여자 108명(82.44%)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직장 근무 경력 분포는 5년 미만 57명(43.51%), 5년 이상 10년 미만 32명(24.43%), 20년 이상 25년 미만 14명(10.69%) 순으로 나타났다.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 관종은 공공도서관 61명(45.56%), 대학도서관 49명(37.40%), 학교도서관 21명(16.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	23	17.56
	여	108	82.44
직장 근무 경력	5년 미만	57	43.51
	5년 이상 10년 미만	32	24.43
	10년 이상 15년 미만	13	9.92
	15년 이상 20년 미만	10	7.63
	20년 이상 25년 미만	14	10.69
	25년 이상	5	3.82
도서관 관종	공공도서관	61	46.56
	대학도서관	49	37.40
	학교도서관	21	16.03

2.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

자유학기제 인식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알고 있음이 54.20%, 모름이 19.85%로 나타나 설문 응답자 중 약 50%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2.826, 여자 3.509로 여자의 인식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25년 이상이 3.8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3.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3.689, 대학도서관 2.776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공도서관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자유학기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 인식	3.389	1.071	남	2.826	10.702a	0.030	5년미만	3.211	17.842a	0.598	공공 도서관	3.689	29.286a	0.000
							5-10년	3.375						
							10-15년	3.615						
			여	3.509			15-20년	3.600			대학 도서관	2.776		
							20-25년	3.643						
							25년이상	3.800						

나.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80.15%가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서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 100.0%, 공공도서관 77.0%, 학교도서관 42.9% 순으로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관중 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경력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직접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참여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학도서관은 자유학기제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유학기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그 평가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8〉 자유학기제 연수 참여 경험 차이

항목	N	%	성별				경력				관중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Chi	p		
예	26	19.85	남	2	8.7	2.181a	0.140	5년미만	8	14.0	7.589a	0.180	공공 도서관	14	23.0	30.864a	0.000		
				5-10년	10			31.3	대학 도서관	0				0.0					
				10-15년	1			7.7											
			여	24	22.2			15-20년	3	30.0				학교 도서관	12			57.1	
				20-25년	4			28.6											
				25년이상	0			0.0											
아니오	105	80.15	남	21	91.3	5년미만	49	86.0	7.589a	0.180	공공 도서관	47	77.0	30.864a	0.000				
				10-15년	12							92.3	대학 도서관			49	100.0		
				15-20년	7							70.0							
			여	84	77.8							20-25년	10			71.4	학교 도서관	9	42.9
				25년이상	5							100.0							

다. 자유학기제가 학생역량배양에 미치는 영향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7.32%, 동의하지 않음이 10.68%로 나타났으며, 평균이 3.366으로 나타나 사서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역량 배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3.261, 여자 3.389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으며, 여자가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25년 이상이 4.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3.462, 5년 이상 10년 미만 3.375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3.667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3.327, 공공도서관 3.295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다.

〈표 9〉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3.366	0.796	남	3.261	4.289a	0.368	5년미만	3.298	21.817a	0.351	공공 도서관	3.295	8.442a	0.392		
							5-10년	3.375							대학 도서관	
							10-15년	3.462								
			여	3.389			15-20년	3.300							학교 도서관	3.667
							20-25년	3.357								
							25년이상	4.000								

라.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

자유학기제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 유연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52.67%, 동의하지 않음이 9.9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45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평균이 3.261, 여자의 경우 3.500으로 나타나, 여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값은 0.268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25년 이상 3.8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538, 5년 이상 10년 미만 3.500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3.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3.388, 공공도서관 3.377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을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i>t</i>	<i>p</i>	구분	M	<i>Chi</i>	<i>p</i>	구분	M	<i>Chi</i>	<i>p</i>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	3.458	0.834	남	3.261	5.298a	0.258	5년미만	3.474	15.093a	0.771	공공 도서관	3.377	9.239a	0.323		
							5-10년	3.500								
							10-15년	3.538								
			여	3.500			15-20년	3.300							대학 도서관	3.388
							20-25년	3.214								
							25년이상	3.800								

마. 자유학기제에서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는 활동 유형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는 활동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 탐색활동과 주제선택활동이 각각 3.9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3.802, 예술·체육활동 3.71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경력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 4.143으로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3.902, 대학도서관 3.531 순으로 나타났다.

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기본적인 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체험중심 수업이 4.160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젝트 학습 4.015, 협동학습 3.9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식 수업은 2.534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경력 간, 관종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자유학기제에서 중심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활동 유형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 활동	3.992	0.789	남	3.609	7.937a	0.094	5년미만	3.982	13.386a	0.860	공공 도서관	4.016	6.443a	0.598
							5-10년	4.000			대학 도서관	3.878		
			여	4.074			10-15년	3.846			학교 도서관	4.190		
							15-20년	4.100						
							20-25년	4.071						
25년이상	4.000													
주제선택 활동	3.992	0.765	남	3.565	2.135a	0.711	5년미만	3.579	24.797a	0.209	공공 도서관	3.721	4.068a	0.851
							5-10년	3.812			대학 도서관	3.694		
			여	3.759			10-15년	3.769			학교 도서관	3.810		
							15-20년	4.100						
							20-25년	3.714						
25년이상	4.000													
예술·체육 활동	3.710	0.728	남	3.391	7.681a	0.104	5년미만	3.614	11.231a	0.940	공공 도서관	3.738	5.113a	0.745
							5-10년	3.781			대학 도서관	3.571		
			여	3.778			10-15년	3.769			학교 도서관	3.952		
							15-20년	3.900						
							20-25년	3.857						
25년이상	3.400													
동아리 활동	3.802	0.817	남	3.391	9.365a	0.053	5년미만	3.719	15.443a	0.751	공공 도서관	3.902	21.379a	0.006
							5-10년	3.875			대학 도서관	3.531		
			여	3.889			10-15년	3.692			학교 도서관	4.143		
							15-20년	4.000						
							20-25년	3.929						
25년이상	3.800													

〈표 12〉 자유학기제 권장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강의식 수업	2.534	0.906	남	2.478	1.277a	0.735	5년미만	2.684	16.258a	0.365	공공 도서관	2.574	4.819a	0.567
							5-10년	2.438			대학 도서관	2.531		
			여	2.546			10-15년	2.462			학교 도서관	2.429		
							15-20년	2.700						
							20-25년	2.071						
25년이상	2.600													
토론식 수업	3.901	0.802	남	3.783	4.360a	0.360	5년미만	3.684	16.528a	0.683	공공 도서관	3.787	8.146a	0.419
							5-10년	3.938			대학 도서관	3.939		
			여	3.926			10-15년	4.000			학교 도서관	4.143		
							15-20년	4.400						
							20-25년	4.214						
25년이상	4.000													
체험중심 수업	4.160	0.802	남	3.870	4.452a	0.348	5년미만	4.000	16.396a	0.692	공공 도서관	4.082	3.897a	0.866
							5-10년	4.344			대학 도서관	4.184		
			여	4.222			10-15년	4.154			학교 도서관	4.333		
							15-20년	4.600						
							20-25년	4.071						
25년이상	4.200													
프로젝트	4.015	0.813	남	3.783	8.487a	0.075	5년미만	3.860	13.922a	0.834	공공 도서관	3.951	3.470a	0.901
							5-10년	4.094						

학습			여	4.065			10-15년	4.000				대학 도서관	4.020		
							15-20년	4.600				학교 도서관	4.190		
							20-25년	4.071							
							25년이상	4.000							
협동 학습	3.985	0.813	남	3.783	7.672a	0.104	5년미만	3.807	13.296a	0.864		공공 도서관	3.918	7.690a	0.464
							5-10년	4.094				대학 도서관	3.918		
							10-15년	3.846							
			15-20년	4.400			학교 도서관	4.333							
			20-25년	4.214											
			25년이상	4.200											

사.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가 3.9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3.870,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786,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 3.64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경력 간, 관중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된다.	3.649	0.743	남	3.478	2.988a	0.560	5년미만	3.596	21.691a	0.358	공공 도서관	3.656	3.603a	0.891
				5-10년			3.812	대학 도서관			3.571			
			여	3.685			10-15년	3.615			학교 도서관	3.810		
							15-20년	3.700						
							20-25년	3.429						
25년이상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 수업시간에도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611	0.828	남	3.391	5.619a	0.229	5년미만	3.509	21.282a	0.381	공공 도서관	3.656	8.431a	0.393
				5-10년			3.812	대학 도서관			3.490			
			여	3.657			10-15년	3.615			학교 도서관	3.762		
							15-20년	3.700						
							20-25년	3.571						
25년이상	3.400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의 경험을 얻어 진로직업역량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3.527	0.807	남	3.435	1.291a	0.863	5년미만	3.439	12.781a	0.887	공공 도서관	3.508	7.761a	0.457
				5-10년			3.594	대학 도서관			3.469			
			여	3.546			10-15년	3.538			학교 도서관	3.714		
							15-20년	3.800						
							20-25년	3.429						
25년이상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3.870	0.769	남	3.652	3.043a	0.551	5년미만	3.825	17.744a	0.604	공공 도서관	3.934	6.704a	0.569
				5-10년			3.875	대학 도서관			3.816			
			여	3.917			10-15년	4.000			학교 도서관	3.810		
							15-20년	4.100						
							20-25년	3.786						
25년이상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흥미	3.313	0.824	남	3.391	8.548a	0.073	5년미만	3.246	20.244a	0.443	공공 도서관	3.230	12.302a	0.138
							5-10년	3.312						

를 갖게 된다.			여	3.296			10-15년	3.538			대학 도서관	3.367		
							15-20년	3.400			학교 도서관	3.429		
							20-25년	3.143						
							25년이상	3.8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786	0.775	남	3.652	1.774a	0.777	5년미만	3.772	11.050a	0.945	공공 도서관	3.787	8.256a	0.409
							5-10년	3.875			대학 도서관	3.673		
			여	3.815			10-15년	3.923			학교 도서관	4.048		
							15-20년	4.000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3.992	0.638	남	3.826	6.749a	0.150	5년미만	3.982	11.070a	0.944	공공 도서관	3.951	6.088a	0.637
							5-10년	4.062			대학 도서관	4.020		
			여	4.028			10-15년	3.923			학교 도서관	4.048		
							15-20년	4.0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	3.527	0.835	남	3.435	5.435a	0.245	5년미만	3.509	21.929a	0.344	공공 도서관	3.492	12.050a	0.149
							5-10년	3.688			대학 도서관	3.592		
			여	3.546			10-15년	3.538			학교 도서관	3.476		
							15-20년	3.400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3.626	0.817	남	3.522	9.099a	0.059	5년미만	3.526	16.421a	0.690	공공 도서관	3.557	7.671a	0.466
							5-10년	3.781			대학 도서관	3.612		
			여	3.648			10-15년	3.692			학교 도서관	3.857		
							15-20년	3.500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3.275	0.823	남	3.261	7.745a	0.101	5년미만	3.123	16.119a	0.709	공공 도서관	3.230	6.166a	0.629
							5-10년	3.469			대학 도서관	3.204		
			여	3.278			10-15년	3.385			학교 도서관	3.571		
							15-20년	3.200						
자유학기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3.298	0.801	남	3.391	8.369a	0.079	5년미만	3.228	23.174a	0.280	공공 도서관	3.197	7.096a	0.526
							5-10년	3.406			대학 도서관	3.347		
			여	3.278			10-15년	3.154			학교 도서관	3.476		
							15-20년	3.100						
							20-25년	3.357						
							25년이상	4.000						

아.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이 4.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4.206,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 제도를 개선해야 함 4.107,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상해야 함 4.09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이 3.267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고려사항으로써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에 대해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항목에 대하여 남자 3.696, 여자 3.176으로 남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항목에 대하여 남자 3.957, 여자 3.898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두 항목 모두 남자의 동의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 간 인식차이는 없었고, 관중 간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2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체험활동 구성에 대해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4.131, 대학도서관 3.959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4.190으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대학도서관이 3.857, 공공도서관이 3.8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3.267	0.876	남	3.696	11.655a	0.020	5년미만	3.053	17.226a	0.638	공공도서관	3.197	11.256a	0.188		
				5-10년			3.250	대학도서관			3.347					
			여	3.176			10-15년	3.692			20-25년	3.571			학교도서관	3.286
				15-20년			3.400	25년이상			3.600					
				25년이상			3.600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3.908	0.696	남	3.957	11.297a	0.023	5년미만	3.789	13.451a	0.857	공공도서관	3.885	5.163a	0.740		
				5-10년			4.031	대학도서관			3.918					
			여	3.898			10-15년	4.077			20-25년	3.786			학교도서관	3.952
				15-20년			4.200	25년이상			3.800					
				25년이상			3.800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3.992	0.662	남	3.870	8.477a	0.076	5년미만	4.035	15.056a	0.773	공공도서관	3.967	4.562a	0.803		
				5-10년			4.062	대학도서관			3.959					
			여	4.019			10-15년	4.154			20-25년	3.571			학교도서관	4.143
				15-20년			4.000	25년이상			3.800					
				25년이상			3.800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강조해야 함	3.855	0.786	남	3.826	1.016a	0.907	5년미만	3.807	19.151a	0.512	공공도서관	3.852	7.337a	0.501		
				5-10년			3.875	대학도서관			3.898					
			여	3.861			10-15년	3.846			20-25년	3.714			학교도서관	3.762
				15-20년			4.100	25년이상			4.200					
				25년이상			4.200									
전통교과와 비전통교과의 통합 운영에 있어 전통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3.695	0.812	남	3.609	.753a	0.945	5년미만	3.825	24.733a	0.212	공공도서관	3.689	6.372a	0.606		
				5-10년			3.750	대학도서관			3.776					
			여	3.713			10-15년	3.385			20-25년	3.071			학교도서관	3.524
				15-20년			3.900	25년이상			4.000					
				25년이상			4.000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	4.267	0.721	남	4.130	2.898a	0.575	5년미만	4.246	28.357a	0.101	공공도서관	4.180	11.113a	0.195		
							5-10년	4.469			대학	4.245				
							10-15년	4.231								

화해야 함			여	4.296			15-20년	4.500			도서관				
							20-25년	3.857			학교 도서관				4.571
							25년이상	4.000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관계자, 일반교사의 역할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4.061	0.699	남	3.739	7.767a	0.051	5년미만	3.930	24.869a	0.052	공공 도서관	4.180	5.555a	0.475	
							5-10년	3.969			대학 도서관	3.918			
			여	4.130			10-15년	4.231			학교 도서관	4.048			
							15-20년	4.600							
							20-25년	4.286							
25년이상	4.000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	4.092	0.613	남	3.913	5.811a	0.055	5년미만	3.965	14.665a	0.145	공공 도서관	4.131	10.631a	0.031	
							5-10년	4.156			대학 도서관	3.959			
			여	4.130			10-15년	4.231			학교 도서관	4.286			
							15-20년	4.500							
							20-25년	4.071							
25년이상	4.000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3.901	0.831	남	3.696	2.317a	0.678	5년미만	3.825	11.998a	0.916	공공 도서관	3.836	15.644a	0.048	
							5-10년	4.031			대학 도서관	3.857			
			여	3.944			10-15년	4.077			학교 도서관	4.190			
							15-20년	4.100							
							20-25년	3.714							
25년이상	3.600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ex. 중간·기말고사 미실시로 고등학교 입시에 성적 미반영)	4.107	0.747	남	3.870	3.887a	0.274	5년미만	3.982	16.634a	0.341	공공 도서관	4.148	5.566a	0.473	
							5-10년	4.094			대학 도서관	4.041			
			여	4.157			10-15년	4.154			학교 도서관	4.143			
							15-20년	4.500							
							20-25년	4.286							
25년이상	4.200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4.206	0.629	남	4.304	.712a	0.701	5년미만	4.158	13.180a	0.214	공공 도서관	4.246	1.875a	0.759	
							5-10년	4.094			대학 도서관	4.143			
			여	4.185			10-15년	4.231			학교 도서관	4.238			
							15-20년	4.800							
							20-25년	4.143							
25년이상	4.400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4.053	0.727	남	4.000	1.789a	0.775	5년미만	4.018	4.150a	1.000	공공 도서관	4.082	8.575a	0.379	
							5-10년	4.094			대학 도서관	4.020			
			여	4.065			10-15년	4.000			학교 도서관	4.048			
							15-20년	4.100							
							20-25년	4.143							
25년이상	4.000														
교육체제 통합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3.786	0.744	남	3.783	2.362a	0.669	5년미만	3.526	22.286a	0.325	공공 도서관	3.820	4.355a	0.824	
							5-10년	3.938			대학 도서관	3.673			
			여	3.787			10-15년	3.923			학교 도서관	3.952			
							15-20년	4.100							
							20-25년	4.000							
25년이상	4.200														

3.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제공에 대한 인식

가.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도서관 역할확대

자유학기제 도입이 도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8.02%가 동의한다고 하였고, 평균은 3.511로 나타났다. 성별 간, 경력 간, 관종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유학기제 도입 시 도서관의 역할확대 기회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 도입 시 도서관의 역할확대 기회	3.511	0.768	남	3.435	1.142a	0.888	5년미만	3.439	20.233a	0.443	공공도서관	3.525	3.635a	0.889
							5-10년	3.469						
							10-15년	3.615						
			여	3.528			15-20년	3.500			대학교서관	3.490		
							20-25년	3.643						
							25년이상	4.000						

나.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산부족이 4.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부족 4.191, 시간부족 3.832, 학생의 호응부족 3.7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인식부족은 3.656으로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가장 장애가 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인식부족 항목에서 남자 평균 3.348, 여자 3.722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경력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부족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즉,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094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5년 미만이 4.298, 25년 이상이 4.000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교서관 4.082, 학교도서관 4.000, 공공도서관 3.5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종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교사의 인식부족	3.656	0.830	남	3.348	11.207a	0.024	5년미만	3.684	25.786a	0.173	공공도서관	3.721	9.808a	0.279
							5-10년	3.781						
							10-15년	3.692						
			여	3.722			15-20년	3.700			대학교서관	3.633		
							20-25년	3.286						
							25년이상	3.4						
시간부족	3.832	0.766	남	3.957	2.142a	0.710	5년미만	3.842	21.186a	0.386	공공도서관	3.574	16.048a	0.042
							5-10년	3.969						
							10-15년	3.538						
			여	3.806			15-20년	4.100			대학교서관	4.082		
							20-25년	3.571						
							25년이상	3.800						

구분	N	%	성별		t	p	경력					관중		Chi	p
			남	여			구분	N	%	Chi	p	구분	N		
학생의 호응부족	3.740	0.908	남	3.522	2.650a	0.618	5년미만	3.825	22.127a	0.334	공공 도서관	3.787	3.338a	0.911	
				3.787			5-10년	3.688			대학 도서관	3.755			
			여	4.231			10-15년	3.769			학교 도서관	3.571			
				4.194			15-20년	4.200			4.148	4.265			
							20-25년	3.357							
25년이상	3.200	4.190													
프로그램 부족	4.191	0.681	남	4.000	5.892a	0.207	5년미만	4.140	16.912a	0.659	공공 도서관	4.180	8.113a	0.423	
				4.231			5-10년	4.188			대학 도서관	4.184			
			여	4.231			10-15년	4.154			학교 도서관	4.238			
				4.194			15-20년	4.600			4.148	4.265			
							20-25년	4.143							
25년이상	4.200	4.190													
예산부족	4.198	0.738	남	4.217	.057a	0.972	5년미만	4.298	18.658a	0.045	공공 도서관	4.148	5.346a	0.254	
				4.194			5-10년	4.094			대학 도서관	4.265			
			여	4.194			10-15년	4.077			학교 도서관	4.190			
				4.194			15-20년	4.700			4.148	4.265			
							20-25년	3.857							
25년이상	4.000	4.190													

다.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문응답 사서 중 63.36%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82.6%, 여자 59.3%로 여자가 프로그램 제공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중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 한 적이 있다는 경우 학교도서관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49.2%, 대학도서관 6.1%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중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

항목	N	%	성별				경력					관중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Chi	p
예	48	36.64	남	4	17.4	4.453a	0.035	5년미만	17	29.8	5.311a	0.379	공공 도서관	30	49.2	34.737a	0.000
				3	6.1												
			여	44	40.7			10-15년	7	53.8			대학 도서관	3	6.1		
				64	59.3			20-25년	7	50.0			학교 도서관	15	71.4		
								25년이상	1	20.0							
아니오	83	63.36	남	19	82.6	4.453a	0.035	5년미만	40	70.2	5.311a	0.379	공공 도서관	31	50.8	34.737a	0.000
				6	46.2												
			여	64	59.3			10-15년	6	46.2			대학 도서관	46	93.9		
				64	59.3			15-20년	5	50.0			학교 도서관	6	28.6		
								20-25년	7	50.0							
25년이상	4	80.0															

라. 도서관의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보활용교육이 3.916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검색교육 3.824, 콘텐츠제작 3.4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 활용하기는 평균 2.756으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및 관중 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 간 인식차이 분석에서는 3D프린터 활용하기, 전자책 만들기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D프린터 활용하기에 대하여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000으로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 2.965, 5년 이상 10년 미만 2.938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만들기 항목에 대하여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평균이 3.900으로 동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 3.509, 5년 이상 10년 미만 3.4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정보 활용교육	3.916	0.795	남	3.739	6.779a	0.148	5년미만	4.088	26.069a	0.164	공공 도서관	3.770	8.894a	0.351
							5-10년	3.844			대학 도서관	4.102		
							10-15년	4.077						
			15-20년	3.700										
			여	3.954			20-25년	3.286			학교 도서관	3.905		
							25년이상	4.200						
컴퓨터 활용교육	3.282	0.897	남	3.261	2.239a	0.692	5년미만	3.421	25.901a	0.169	공공 도서관	3.180	5.297a	0.725
							5-10년	3.188			대학 도서관	3.469		
							10-15년	3.385						
			15-20년	3.300										
			여	3.287			20-25년	2.786			학교 도서관	3.143		
							25년이상	3.400						
정보검색 교육	3.824	0.890	남	3.565	3.534a	0.473	5년미만	3.930	19.753a	0.473	공공 도서관	3.590	15.060a	0.058
							5-10년	3.594			대학 도서관	4.082		
							10-15년	3.923						
			15-20년	4.200										
			여	3.880			20-25년	3.429			학교 도서관	3.905		
							25년이상	4.200						
인터넷 활용교육	3.374	0.931	남	3.261	7.588a	0.108	5년미만	3.509	22.109a	0.335	공공 도서관	3.262	13.297a	0.102
							5-10년	3.281			대학 도서관	3.469		
							10-15년	3.538						
			15-20년	3.200										
			여	3.398			20-25년	3.000			학교 도서관	3.476		
							25년이상	3.400						
SNS 활용하기	3.176	0.864	남	3.174	0.537a	0.970	5년미만	3.316	20.388a	0.434	공공 도서관	3.082	6.523a	0.589
							5-10년	3.250			대학	3.245		
							10-15년	3.077						

			여	3.176			15-20년	3.200			도서관			
							20-25년	2.571			학교 도서관	3.286		
							25년이상	3.000						
콘텐츠 제작	3.473	0.931	남	3.304	1.683a	0.794	5년미만	3.632	23.815a	0.251	공공 도서관	3.475	1.151a	0.997
							5-10년	3.406			대학 도서관	3.469		
			여	3.509			10-15년	3.538			학교 도서관	3.476		
							15-20년	3.600						
							20-25년	3.071						
25년이상	2.800													
아이패드 사용하기	2.885	0.982	남	2.739	2.687a	0.612	5년미만	2.965	15.791a	0.729	공공 도서관	2.787	11.306a	0.185
							5-10년	2.938			대학 도서관	2.918		
			여	2.917			10-15년	2.846			학교 도서관	3.095		
							15-20년	3.200						
							20-25년	2.357						
25년이상	2.600													
전자책 만들기	3.412	0.919	남	3.217	3.359a	0.500	5년미만	3.509	34.396a	0.024	공공 도서관	3.377	9.301a	0.318
							5-10년	3.469			대학 도서관	3.469		
			여	3.454			10-15년	3.154			학교 도서관	3.381		
							15-20년	3.900						
							20-25년	3.000						
25년이상	2.800													
3D프린터 활용하기	2.947	0.987	남	2.870	3.480a	0.481	5년미만	2.965	61.526a	0.000	공공 도서관	2.918	10.613a	0.225
							5-10년	2.938			대학 도서관	3.082		
			여	2.963			10-15년	2.846			학교 도서관	2.714		
							15-20년	4.000						
							20-25년	2.357						
25년이상	2.600													
드론 활용하기	2.756	1.016	남	2.826	.941a	0.919	5년미만	2.825	16.345a	0.695	공공 도서관	2.803	7.493a	0.485
							5-10년	2.719			대학 도서관	2.776		
			여	2.741			10-15년	3.077			학교 도서관	2.571		
							15-20년	3.000						
							20-25년	2.143						
25년이상	2.600													
구글글래스 활용하기	3.015	1.008	남	2.826	3.674a	0.452	5년미만	3.211	17.749a	0.604	공공 도서관	2.984	5.779a	0.672
							5-10년	2.844			대학 도서관	3.163		
			여	3.056			10-15년	3.154			학교 도서관	2.762		
							15-20년	3.300						
							20-25년	2.500						
25년이상	2.400													

마.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독서역량이 평균 3.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역량 3.878, 자기개발능력 3.817, 진로탐색역량 3.7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발능력 항목에서 남자 3.826, 여자 3.815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경력 간 인식차이는 없었고, 관중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4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발능력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이 4.048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고, 대학도서관 3.776, 공공도서관 3.770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은 3.810으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냈으며, 대학도서관 3.612, 공공도서관 3.525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4.1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3.755, 공공도서관 3.508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역량 항목의 경우 학교도서관 4.238, 대학도서관 3.980, 공공도서관 3.6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

항목	M	Std	성별			경력				관중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 역량	3.771	0.750	남	3.478	9.091a	0.059	5년미만	3.754	17.652a	0.610	공공 도서관	3.721	11.165a	0.193
							5-10년	3.844						
							10-15년	3.615						
			여	3.833			15-20년	3.700						
							20-25년	3.929						
							25년이상	3.600						
자기개발 능력	3.817	0.752	남	3.826	13.300 a	0.010	5년미만	3.772	17.649a	0.611	공공 도서관	3.770	19.812a	0.011
							5-10년	3.844						
							10-15년	3.769						
			여	3.815			15-20년	3.700						
							20-25년	4.000						
							25년이상	4.000						
문제해결 능력	3.603	0.771	남	3.478	3.693a	0.449	5년미만	3.509	14.907a	0.782	공공 도서관	3.525	22.004a	0.005
							5-10년	3.719						
							10-15년	3.462						
			여	3.630			15-20년	3.700						
							20-25년	3.786						
							25년이상	3.600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702	0.829	남	3.478	2.676a	0.613	5년미만	3.649	22.705a	0.304	공공 도서관	3.508	16.272a	0.039
							5-10년	3.906						
							10-15년	3.769						
			여	3.750			15-20년	3.800						
							20-25년	3.286						
							25년이상	3.800						
독서역량	3.947	0.727	남	3.957	.791a	0.852	5년미만	3.860	7.077a	0.955	공공 도서관	3.820	8.660a	0.194
							5-10년	4.094						
							10-15년	3.769						
			여	3.944			15-20년	4.100						
							20-25년	3.929						
							25년이상	4.200						
정보역량	3.878	0.755	남	3.696	5.680a	0.224	5년미만	3.877	18.129a	0.579	공공 도서관	3.672	17.505a	0.025
							5-10년	3.969						
							10-15년	3.769						
			여	3.917			15-20년	4.100						
							20-25년	3.571						
							25년이상	4.000						
인문역량	3.740	0.697	남	3.696	4.791a	0.188	5년미만	3.772	20.264a	0.162	공공 도서관	3.721	11.749a	0.068
							5-10년	3.844						
							10-15년	3.462						
			여	3.750			15-20년	3.400						
							20-25년	3.714						
							25년이상	4.200						

바.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인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없었으며, 사람도서관(Human Library)과 읽GO! 생각하GO! 꿈꾸GO!이 각각 3.939로 가장 제공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꿈길을 열어 주는 책읽기 3.908, 직업전문인 특강 3.8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도서관에서 제공해 보고 싶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M	Std
	N	%	N	%	N	%	N	%	N	%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2	1.53	9	6.87	33	25.19	68	51.91	19	14.50	3.710	0.855
사서직 실무 체험 프로그램	2	1.53	10	7.63	36	27.48	64	48.85	19	14.50	3.672	0.872
사서 이해 프로그램	1	0.76	6	4.58	39	29.77	65	49.62	20	15.27	3.740	0.800
책 읽어주세요	4	3.05	6	4.58	38	29.01	59	45.04	24	18.32	3.710	0.924
직업전문인 특강	2	1.53	5	3.82	28	21.37	68	51.91	28	21.37	3.878	0.841
읽GO! 생각하GO! 꿈꾸GO!	2	1.53	1	0.76	26	19.85	76	58.02	26	19.85	3.939	0.752
찾아가는 진로특강	3	2.29	2	1.53	38	29.01	58	44.27	30	22.90	3.840	0.875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	4	3.05	7	5.34	35	26.72	62	47.33	23	17.56	3.710	0.924
사람도서관 (Human Library)	3	2.29	4	3.05	21	16.03	73	55.73	30	22.90	3.939	0.848
꿈길을 열어주는 책읽기	2	1.53	2	1.53	27	20.61	75	57.25	25	19.08	3.908	0.769
명화와 동화 속-그림과 노닐다	2	1.53	8	6.11	39	29.77	58	44.27	24	18.32	3.718	0.888
자유학기제 여행플래너	2	1.53	2	1.53	32	24.43	72	54.96	23	17.56	3.855	0.776
지역역사 알아보기	3	2.29	8	6.11	50	38.17	57	43.51	13	9.92	3.527	0.844
지역 문학과와 떠나보는 문학기행	2	1.53	7	5.34	36	27.48	71	54.20	15	11.45	3.687	0.805
문학에서 알아보는 시대상	4	3.05	11	8.40	55	41.98	46	35.11	15	11.45	3.435	0.912
예술작품 감상법 배워보기	3	2.29	7	5.34	53	40.46	53	40.46	15	11.45	3.534	0.853
책 속 멘토 찾기	3	2.29	3	2.29	35	26.72	66	50.38	24	18.32	3.802	0.845
책 속 멘티 찾기	2	1.53	9	6.87	41	31.30	59	45.04	20	15.27	3.656	0.875
도서관 장래희망 매뉴얼 만들기	6	4.58	5	3.82	42	32.06	57	43.51	21	16.03	3.626	0.955

VI. 결론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의지, 현재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질문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참여 경험자도 20%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것은 2013년이고, 전면시행은 2016년부터이므로 아직 사서들의 인식은 낮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고 다양한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신속하게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직접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참여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학도서관은 자유학기제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유학기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그 평가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역량강화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자유학기제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며, 결국 교육과정의 유연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역량, 정보역량, 자기개발능력, 진로탐색역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황유진(2014)의 연구에서도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의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학교활동을 보장하고, 체험 중심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생에 대한 설계 및 사회 학습에 다른 적응력, 창의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했는데, 사서들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되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기대 성과로 평가되며, 자유학기제의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서들은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본 방향, 운영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사서들은 자유학기제가 도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0% 정도의 사서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제공할 경우 예산이나 사서들의 시간 부족 등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36%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 중 정보활용교육, 정보검색교육, 콘텐츠 제작, 전자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도서관의 역할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수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도서관은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중학교는 현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으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하며, 중학생들이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활용하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 도서관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서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과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도입초기의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향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학교 및 기관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주로 직업체험, 독서활동, 인문학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서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여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라. 201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0-48.
- 김나라,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김미라. 2015.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악교육의 활성화 방안. 『국악교육연구』, 9(1): 25-55.
- 김미진, 이재창, 임재일, 홍후조.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 김성숙, 김정현, 정인경. 2015.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가정교과의 방향성 탐색.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77-178.
- 김은정. 2013. [발표]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활용방안.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7-90.
- 김지아, 이부연. 2015.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329-342.
- 성은모, 정효정. 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 신성미.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및 교과연계 학생선택프로그램 운영학교 사례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교육전공.
- 조계중. 2015.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체험 경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과 태도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9(4): 89-97.
- 하시연, 이연희, 손지원. 2015. 산림교육 연계 자유학기제 만족도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412-412.
- 하정화, 손주영. 2015.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05. 1-207.
- 현은령. (2015). 미디어융합디자인을 통한 자유학기제 창의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2): 509-518.
- 황유진 (2014).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 역량의 신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14(1): 98-98.

[참고 웹사이트]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2013.5.28.). [Online]. [cited. 2016.1.25.].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view.do?bbsId=316&boardSeq=4798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Kyejoong. 2015.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and their Awareness to Free Semester Field Trip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oreation and Welfare Proceeding*, 19(4): 89-97.
- Ha, Jeonghwa and Ju-Young Son. 2015. "Research on Promoting Youth activities with the Introduction of Free Semester System." *Pusan: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No. 2015-05*. 1-207.
- Ha, Si-Yeon, Yeon-Hee Lee, and Ji-Won Son. 2015. Analysis of Satisfaction on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Connected with Forest Education, 412-412.
- Hwang, Yu Jin. 2014.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through the Education Fostering your Dream & Talen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oceeding*, 2014(1): 98-98.
- Hyun, Eun Ryung. 2015. The Development of a Creative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a Free Semester Operation Media-Convergence Design. *Journal of Digital Design*, 15(2): 509-518.
- Kim, Mi-Jin, Jae-Chang Lee, Jae-Il Lim, and Hoo-Jo Hong. 2014. "An analysis of school reports on Free Learning Semester: Focusing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2): 215-241.
- Kim, Mi-Ra. 2015. "How to Activate Korean Music Education According to the Free Semester System."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9(1): 25-55.
- Kim, Nara. 2013. Free semester by foreign cas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rer Education Proceeding*, 10-48.
- Kim, Nara and Jiwon Choi. 2014.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Free Learning Semester through Foreign Cases Analysis based on Ireland, Denmark, Sweden, and United Kingdom."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199-223.

- Kim, Sung sook and Jung-Hyun Kim, In-Kyung Jung. 2015. A Study on Home Economics EducationS Orientation of the Introduction of Free Semes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roceeding*, 177-178.
- Kim, Eun Jeong. 2013. [Publication] The Practical Using Plans of Home Economics Educations Free Semester system and Carrer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roceeding*, 67-90.
- Kim, Ji Ah and Boo Yun Lee.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sign Education Program Using the Public Design - Focusing o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in Middle School." *Journal of Digital Design*, 15(1): 329-342.
- Sung, Eunmo and Hyojung Jung. 2013. "Communitys Participating Strategies for Facilitating Experience-based Youth Career Educatio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4): 49-63.
- Shin, Sung Mi. 2015. *Analysis of FSP operations statement and case school that was implemented optional module model related main subjec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ah Womans University. Major in Biology Education.